

## (R) 남해 바래길 매력에 빠져보세요

2021-06-22 김현우 기자(haenu99@scs.co.kr)

(남) 남해 바래길이 개통된 지 어느덧 200일이 지났습니다. 이 기간 동안 완보한 사람이 100명을 넘어섰는데요.

(여) 코로나 시대 비대면 여행 상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. 조진욱 기자입니다.

남해에서 관광해설사로 일하는  
문부경씨에겐  
조금은 남다른 이력이 있습니다.

바로 231km에 달하는  
남해 바래길을  
두 차례나 완보한 일입니다.

이런 문씨도  
처음부터 바래길에  
관심을 갖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.

▶ 인터뷰 : 문부경 / 남해 바래길 2회 완보자

- "3월 초에 탐방센터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오신 한 분이 남해와서 보니까 바래길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"

▶ 인터뷰 : 문부경 / 남해 바래길 2회 완보자

- "완보 등록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. 저분은 남해 출신도 아닌데 저렇게 하는데..."

남해 토박이로,  
누구보다 고향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그지만  
바래길을 걸으며 바라본 남해는  
색다른 매력으로 가득했습니다.

▶ 인터뷰 : 문부경 / 남해 바래길 2회 완보자

- "마늘일을 하는 것, 농사일을 하는 것, 이런 것들이... 그 다음에 미역 같은 걸 따고 말리고 있는"

▶ 인터뷰 : 문부경 / 남해 바래길 2회 완보자

- "그런 주민들의 생활상이 보기에 좋았고 많이 와닿았습니다. "

전용앱 통계에 따르면  
바래길의 매력에 빠져  
완보한 사람은  
지난해 11월 개통식 이후  
벌써 100명을 넘어섰습니다.

[하단CG]

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 
수도권에서 온  
외지 방문객들입니다.

반응도 좋습니다.

남해군 설문조사에서  
완보자 가운데 97.4%가  
만족했다고 답했고,  
남해 바래길 전용앱에도  
96.9%가 후한 평가를  
남겼습니다.

또 전체 완보는 아니지만  
19개 코스별 인증 횟수는  
4천 회를 넘어섰습니다.

거리로 환산하면  
4만 8,817km인데,  
4만 2천km인  
지구 한 바퀴보다 더 깁니다. ///

남해군은 이같은 인기에 맞춰  
바래길 구간을 더 늘리고,  
다양한 체험거리를  
추가하기로 했습니다.

- ▶ 인터뷰 : 윤문기 / 남해관광문화재단 바래길팀장
- "요가라든지 명상같은 게 접목된 웰니스 체류형 여행상품도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. 섬 테마 바래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"
- ▶ 인터뷰 : 윤문기 / 남해관광문화재단 바래길팀장
- "각각의 섬마다 현재 걷는 길을 탐방로 조성을 기획하거나 조성 중에 있어서..."

다만 화장실이나 쉼터 같은  
부족한 인프라는  
보다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

또 보행도로가 따로 없는  
일부 구간은  
안전을 위해 보완이 필요합니다.

코로나19 시대  
새로운 남해 관광 문화를 이끌고 있는  
남해 바래길.

지리산 둘레길과 제주 올레길처럼  
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

SCS 조진욱입니다.